

텍스트와 이미지의 어울림과 변주... '시너지' 창출

양서와 '양서 아닌 것'의 차이

베르나르 올리비에의 《나는 걷는다》는 텍스트로만 이뤄진 책이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중국 시안까지, 실크로드 1,099일 도보여행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알 때 반듯한 도판 하나 없다는 사실이 의아스럽다. 그러나 전체 3권 1,400여 쪽에 달하는 책을 정독한 독자들은 묵직한 텍스트를 칭찬한다. 《나는 걷는다》를 책임 편집한 효형출판 고혜숙 편집장은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생각하면 도판에 대한 욕심은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고행의 기록을 통해 올리비에에는 느낌, 비움, 침묵의 미덕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음인데, 눈길 끄는 도판은 그러한 메시지를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올리비에의 고독한 실크로드 장도(壯途)를 ‘텍스트 고행’으로 동참케 한 편집자의 결단어린 선택이 돋보인다.

《나는 걷는다》를 놓고 볼 때, 텍스트만 있고 이미지는 없다고 과연 단정할 수 있을까. “도판은 비주얼 요소지만, 그 자체로 텍스트임을 알아야 한다”는 고혜숙 편집장의 말을 참고하면, 이 책만큼 텍스트와 이미지의 어울림을 시사하고 보여주는 책도 없다.

고혜숙 편집장은 무분별하게 도판이 사용된 책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내용과 긴밀한 연계 없는 도판사용과 도판배치는 텍스트 읽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독자들에게 대한 기만이라는 것이다. 고혜숙 편집장은 “도판뿐만 아니라, 판형, 지질, 인쇄 등 출판 전 과정이 내용과 부합될 때 ‘단단하고 아름다운 책’이 만들어진다”며 텍스트와 이미지의 어울림이 고단한 작업의 결실임을 말했다.

마음산책 고은희 편집장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성공적인 결합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기획 단계서부터 테마를 확정, 긴밀히 관계시킬 것 >작업중에도 텍스트와 이미지를 끊임없이 조율할 것 >저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 등이 그 내용이다. 고은희 편집장은 “책을 고급화하는 편리한 수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완성도 높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균형을 이룰 때 볼 만한 책이 만들어진다”며 일각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균형은 어울림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균형을 이룬 텍스트와 이미지는 시너지를 발휘하기 마련이다. 고은희 편집장은 그런 사례로 소설가 김영하와 만화가 이우일이 펴낸 《김영하 이우일의 영화이야기》를 앞다 놓았다. 책이 출간되었을 때 초기독자는 김영하의 팬들이었다. 단순삽화가 아닌, 텍스트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우일표 만화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독자들은 두 저자를 놓고 자신들만의 힘겨루기를 펼쳤다.

고은희 편집장은 “김영하와 이우일이 만든 시너지는 출간 전부터 짐작된 것이었다”고 말한다. 친분이 돈독한 두 저자는 주체적으로 편집에 참여, ‘저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는 원칙에 충실하려 했던 편집자를 무색케 했다. 고은희 편집장은 “시너지를 낳는 저자들을 찾아 참여시키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세 가지 원칙에 다른 한 가지를 보탤다.

열림원 편집팀 김수진 씨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각자의 고유성을 서로 침범하지 않는가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문, 산문, 예술 등의 장르가 좋은 궁합을 내보였지만, 그를 따라 부지런히 작업된 소설 장르는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씨는 “텍스트 자체가 상상력을 제공하는 소설은 이미지와 상극, 본격소설을 찾아 읽던 독자와 일반독자 모두가 외면했다”며 고유성이 침범된 실패사례를 설명했다.

김씨는 소설가 강석경의 산문집 《경주산책》을 작업하며 ‘산책’이란 테마에 집중했다. 경주에 대한

- 《경주산책》의 중간 중간, 한숨 돌리라는 듯 접지로 삽입된 3면 이미지는 전에 없던 것이라 신선하다. •• 원고지 300장 정도밖에 안 되는 원고지만, 붉은 밑줄을 긋고 손글씨체 타이포로 본문을 구성해 '빨간 공책'의 의미를 심분 살렸다. ••• 고행의 기록을 통해 올리비에에는 느낌, 비움, 침묵의 미덕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음인데, 눈길 끄는 도판은 그러한 메시지를 위반한다는 설명이다. 올리비에의 고독한 실크로드 장도塗를 '텍스트 고행'으로 동참케 한 편집자의 결단어린 선택이 돋보인다.



정보보다는 산책의 정서가 강조된 텍스트였던 터라, 화가 김호연 씨의 그림 역시 미적 동선을 살려 산책이란 테마에 부합시켰다. 《경주산책》의 중간 중간, 한숨 돌리라는 듯 접지로 삽입된 3면 이미지는 전에 없던 것이라 신선하다. 김씨는 “테마를 먼저 잡아두면, 주류의 책들과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다”며 “테마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독자들의 양서 선택에 좋은 기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김씨는 예전에 읽었던 텍스트에 이미지를 입혀 내놓는 책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졌다.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에 좋은 법 없다. 익숙한 맛을 넘어서는 새로운 맛, 곧 새로운 해석이 없다면 그것만큼 무의미한 작업도 없다는 것이다. 그와 비슷한 사례로 부족한 원고분량을 메우기 위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물론 원고분량이 부족하다라도 이미지가 훌륭히 가미되며 신선함을 전하는 책도 있다.

사전에세이를 꾸준히 내고 있는 소설가 임동현 씨는 폴 오스터의 《빨간 공책》을 그 예로 꼽았다. 임씨는 “원고지 300장 정도밖에 안 되는 원고지만, 붉은 밑줄을 긋고 손글씨체 타이포로 본문을 구성해 ‘빨간 공

책’의 의미를 심분 살린 책은 제 값을 하는 작품”이라 평가한다. 임씨는 “영상문화에 길들여진 독자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원고를 이미지로 메우고 평균 이상의 정가를 붙이는 과렴치한 책은 독자들이 눈 밝게 알아본다”며 진정성 없는 가벼운 책들을 질타했다.

영상제국의 시대, 텍스트와 이미지의 어울림 혹은 개성있는 변주는 출판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자기 갱신과 자기 철학으로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는 책들이 오늘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뒤에 슬그머니 붙어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뻔뻔한 책들도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잡하게 조합한 눈요깃거리 한 상을 들이밀고 “즐거라” 강요하는 출판사들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빠이폰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영상시대에 발을 맞춘 생존을 넘어 독자적 자기영역을 개척, 확대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산책 고은희 편집장의 말은 양서 아닌 것들에게 ‘던지는’ 냉소어린 일갈이다. **김민**

박용두 기자